

러시아 우선사항 결정,
전투기 현대화 계획

러시아 공군은 우선적으로 추진할 현대화 프로그램의 목록을 결정하였다. 동 프로그램에는 기존의 공격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수호이 Su-271B 전투-폭격기와 Tu-95MS Bear H, Tu-160 블랙잭의 업그레이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MiG-31M Foxhound B와 MiG-29M 전투기는 긴급 재정의 이유로 우선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수호이 T-60S 개량형 중형 폭격기와 Su-27M 전투기에 대한 언급도 없다.

동 현대화 계획은 이 외에도 군용 수송기 일류신 Il-76MF, Il-106, 안토노프 An-70, 전투용 헬기 카모프 Ka-52와 밀 Mi-24를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의 항공단은 밀 Mi-24 Hind 무장 지원 헬기의 교체가 급선무인 실정이다.

동 계획은 2005년까지 수행될 것이며 러시아 정부는 채택을 승인하였다.

MDC/IAI 팀,
T-38 개조

미 공군의 노드롭(Northrop) T-38 탈론기(Talon) 업그레이드를 맥도널 더글라스(MDC)사/이스라엘 항공기 산업 팀이 맡게 되었다.

미 국방부는 노드롭 그루먼/엘타사 연합을 비롯해 6개 팀으로부터 제출된 제안중 이스라엘의 동사의 F-4 Plus 종합 계획을 높이 평가하였다.

MDC사는 T-38기 항공 전자 공학 프로그램의 첫 단계를 위한 4,560만 달러의 계약을 따냈으며, 생산과 보조 옵션 부분은 4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동사는 주 하도급 업체인 이스라엘의 IAI와 더불어 주 계약자가 될 것이다.

초기의 계약은 업그레이드된 항공 전자 장비가 장착된 두 대의 T-38기의 시험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동 시험기들은 18개월에 걸쳐 비행시험을 한 후 '98년 초에 발주될 것이다. 나머지 425대의 항공기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그때 결정될 것이다.

Raytheon사로부터
첩보기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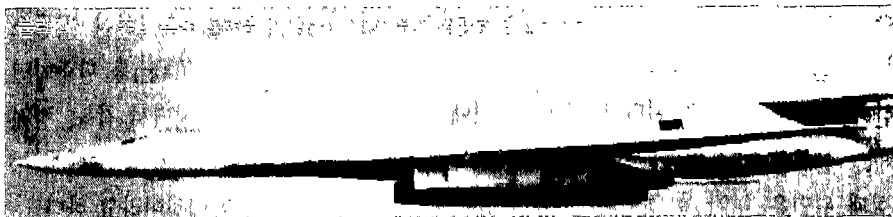
Raytheon사는 대한민국이 8대의 호커(Hawker) 800XP 중형 제트기와 4대의 통신-정보(SIGINT)용 시스템을 자회사인 E-Systems로부터 구매하기로 결정함으로써 2억5천만을 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첨단 공중 정찰 시스템의 구매는 또한 미 록히드 마틴의 로탈 전략 방어 시스템 사로부터 2억달러 상당의 합성 개구 레이더(SARs: 비행기, 인공 위성에서 쓰이는 공대지 고분해능 레이더)도 포함하고 있다. 군용으로 개조된 상용기 중 4대는 E-Systems의 장비가 장착될 것이고, 나머지 4대는 SAPs를 사용할 예정이다.

최초의 항공기가 운용에 돌입하는 것은 금세기 말로 예정되어 있으나, 그 일정은 98년 말로 앞당겨질 수도 있으며 SAR-장착기는 바로 1년 후에 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의 군수 업계에서는 '평화의 개척자'로 불리는, 동 기밀 프

로젝트는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것은 5개년 군 현대화 계획 중의 하나이다.

동 항공기는 미군의 RC-12/RU-21 가드레일(Guardrail) 통신, 정보, 전자 신호 탐지용 항공기를 대체할 것이다.

유로파이터 지원, 독일 '97년 예산서 제외

유로파이터에 대한 자금 지원이 독일의 '97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되었다고 독일 국방성이 밝혔다.

독일 정부가 계약상으로는 유로파이터 EF2000의 개발 자금 지급을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허가를 받아내야하는 생산 투자가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국방비 삭감으로 인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말에 동 계획의 생산 투자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EF2000을 실제로 운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영국과 이탈리아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466억 독일 마르크(300억달러)로 삭감된 '97년 예산은 최소한 한 개의 주요 방위조달계획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헬리오스2/호루스 정찰 위성 계획과 유로콥터 타이거 전

투용 헬기가 우려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또한 다음 5개의 프로그램이 고려의 대상에 있다고 밝혔다. PARS3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Trigat), STN 아틀라스 타이푼 무인 비행체 개발, MAW/아파치 스탠드-오프 무기, 토네이도의 자기 방어용 방해 전파 발신기.

C-17 80기 구매 MD사, 미공군과 계약

미공군은 MD사의 C-17 그로브 마스터 수송기를 향후 7년간에 80기를 추가 구매키로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미공군 당국이 발표했다. 계약금액은 포함 P&W제의 엔진 값까지를 포함하면 162억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로서 미국방총성은 가장 긴 기간에 가장 많은 계약을 체결했다고하며 MD사로서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에 걸쳐 80기의 C-17수송기를 납품하게 되었고 최대 연간 15기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5세대기 개발계획 러 공군사령관 밝혀

러시아 공군사령관은 현재 취

역중인 Tu-22M 백 파이어 폭격기와 Su-24 펜서 전투기의 후계기가 될 제5세대 장거리 공격기의 개발추진과 조달을 계획하고 있다고 러시아 정부기관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러시아 공군은 많은 기종의 임무를 소수기종으로 담당케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Tu-22M과 Su-24의 후계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80년대 중반에 개발이 시작된 수호이 T60S계획이 아직도 계속중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사통은 보고 있다.

또한 동 공군사령관은 Su-27 IB형 전투폭격기의 정찰형도 개발중임을 확인했다고 정부기관지는 전했다.

한편 MAPO-MiG 소식통에 의하면 차세대 전투기인 미코얀 1.42는 이미 원형기 2기를 제작중이라며 만약 비행시험비를 공군에서 제공한다면 동 기는 연내에라도 첫 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자금부족문제는 여전히 러시아의 항공기 개발계획을 크게 제한하고 있으며 여러 정보를 종합할때 러시아 공군은 운용에 필요한 수의 항공기를 제때에 조달할 수 없는 것이 실정인것 같다고 국제 조사 소식통은 보고 있다.